

여수시, 글로벌 스마트관광도시 선포

IT기반 관광서비스 제공...미디어아트 등 해양공원 일원 '밤디블 거리' 조성

여수시가 '스마트관광도시 여수' 출범을 선포하고 글로벌 관광도시로의 도약에 나선다.

여수시는 정기명 시장과 김영규 여수시의회의장, 도·시의원, 이학주 한국관광공사 관광산업본부장, 이순미 여수시관광협의회 공동회장을 비롯해 전라남도도와 여수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29일 여수해양공원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글로벌 스마트관광도시”는 관광과 기술을 접목해 IT기반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편리한 여행환경을 조성하는 도시를 말한다.

이번 사업은 전라남도가 2020년 12월 ‘코리아 토틀 관광 패키지(KTTP)’ 사업에 선정된 것을 계기로 추진됐다.

KTTP 사업은 수도권에 집중된 외국인 관광객을 지방으로 유도에 지역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등 9개 부처가 합동으로 공모를 추진했다.

여수시는 KTTP의 핵심사업인 ‘스마트관광도시’에 선정돼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관광공사 권장 스마트관광 5대 요소를 적용하여 국비 35억원, 도비 7억원, 시비 28억원 등 총 70억원을 투입한 다양한 스마트관광 기반을 조성하게 됐다.

시는 먼저 이순신광장에서 여수해양공원으로 이어지는 1.5km 구간에 미디어월, 미디어아트, 인터랙티브 버스킹, 디지털 사이니지 등을 만나볼 수 있는 ‘밤·디·블 거리’를 조성했다.

‘밤·디·블 거리’는 밤바다와 디지털이 만나 반딧불로 경험하는 스마트 관광거리를 의미하며, 아름다운 여수밤바다와 함께 스마트한 체험을 제공하게 됐다.

관광 통합앱인 ‘여수엔’도 출시한다. 곳곳에 흩어진 여수의 관광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KTX, 항공 등 교통편과 여수시 전역의 음식점, 관광지, 특산물 구입 등을 하나의 앱에서 통합 예약·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AR캐릭터 잡기, 여행 전 매다버스 등 가상공간에서의 재미있는 체험과 외국인 관광객

을 위한 영어와 중국어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여수엔’은 개발이 완료된 상태로, 12월 중순부터 이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최첨단 IT 기술을 관광 서비스에 접목해 여수시 전역에서 스마트한 하나로 편리하고 똑똑한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면서 “스마트 관광도시 사업은 인천과 수원에 이어 여수시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특례시를 제외하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최초”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지난달 29일 여수해양공원에서 여수시 글로벌 스마트 관광도시 출범식이 열렸다. <여수시 제공>

순천시 '일류 순천' 조직개편

일류도시기획단·청년정책과, 교통정책과 등 신설 국제정원박람회 대비 기능별 유기적 협력체계 강화

순천시가 '미래성장 동력 발굴 및 도시공간 재창조'를 목표로 민선8기 첫 조직개편을 시작했다. 지난 7월부터 민·관·학·민·관·학 추진체계를 구성해 자체적으로 조직분석 및 진단을 마쳤고,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조직개편안은 제26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순천시는 2023년 1월 새로운 조직으로 다시 시작하게 된다.

이번 개편은 '도시공간 재창조' '신산업생태계 구축' '청년 지역 정착 지원' 등 민선8기 비전 실현에 역점을 두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시대에 대응하고 부서별 기능 중복 등에 따른 비효율을 개선하고자 했다.

3개과를 신설(일류도시기획단, 청년정책과, 식품위생과), 2개과를 분리신설하고(교통과→교통정책과/교통관리과, 생태환경과→기후에너지과/환경관리과), 4개과 폐지, 1개과를 통합하여(투자일자리과 + 지역경제과→경제진흥과) 11국 84개과(4급·5급 기구수는 유지)로 개편한다.

시는 일부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략기획실'과 같이 '일류도시기획단'을 신설해 부서별 융·복합이 필요한 광역자원화시설·예술의전당 등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기본구상을 설계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부서장 책임하에 특별로 상황에 따라 업무를 배분·조정하는 '기업형 운영방식'을 도입해 정책결정 구조의 유연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박람회조직위로 핵심인력 63명을 파견함에 따라 대팀제로 정비해 일하는 실무인력을 늘리는 데 초점을 두었다.

1팀장 1팀원이 있는 팀은 없애고, 스카이크루브, 코로나 재택치료 등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 업무는 유사한 기능을 하는 팀과 통합했다. 팀 간 칸막이를 줄여 업무 협업을 도모하고,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실무직원이 늘어남에 따라 민원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민선 8기 비전을 조직에 담아내고, 기능 중심 효율적인 조직으로 변화시켜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순천을 만들어 가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앞으로 도시의 미래를 위한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공간 중심 도시정책 추진으로 남해안 벨트 허브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구례군 치매안심마을 환경개선 호응

광의면 지천리 100가구 가스자동잠금장치 등 지원

구례군이 치매안심마을 내 치매 어르신 및 고령가구의 가스·전기 화재 사고 발생으로부터 안전한 시설과 생활공간 마련을 위해 '치매가구 환경개선 안전플러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매가구 환경개선 안전플러스 사업은 전남광역치매안심센터,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노후된 고무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고 가스안전장치(타이머폭) 설치, 노후된 전기 차단기 교체, LED 무선 센서등 설치 등 신규 치매안심마을인 광의면 지천리

100가구를 선정해 진행했다. 치매 어르신 및 치매고위험군(독거, 고령자)은 상대적으로 인지능력이 떨어져 화재에 노출될 위험이 크고 화재 발생 시 대처능력이 낮다.

구례군 치매안심센터는 광의면 지천리 마을 경로당과 어르신 100가구를 대상으로 기존 노후된 전등을 LED 무선 센서등으로 교체 및 신규 설치하는 자체사업을 진행하여 어르신들이 야간 보행 시 보다 안전하게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여 신규 치매안심마을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곡성군 어르신들의 희로애락 6번째 이야기

'인생이야기' 발간

곡성군이 지역 어르신들의 희로애락을 담은 '곡성 어르신들의 인생이야기' 여섯번째 책(사진)을 발간했다.

이번 이야기책은 지역 어르신 22명의 성장, 가족, 결혼, 사회생활 등을 구술하였다. 짧게는 60년, 길게는 90년에 걸친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곡성군은 후손들에게 귀중한 삶과 지혜를 공유하고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발간된 책은

참여 어르신, 읍면 경로당 및 읍면사무소 등에 배부될 예정이다.

이상철 곡성군수는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주신 어르신들과 출간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르신들이 자

곡작곡 쌓아올려 놓은 기반 위에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을 만들도록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it@kwangju.co.kr

보성군 '득량바라기 20호' 집수리 완료

보성군 득량면희망드림협의회(공동위원장 조승권, 최성복)는 지난달 30일 '득량바라기 20호' 집수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부터 득량면희망드림협의회는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저소득층의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인 '살고 싶은 득량, 득량바라기 100호'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득량바라기 20호' 대상자는 고령의 독거 어르신으로 재래식 화장실이 전기 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소실돼 경로당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득량면은 한국수자원공사와 연계해 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했다.

또한, 보성군사회복지협의회 '좋은 이웃들' 사업으로는 노후 전선을 철거하고 전기 배선공사를 실시했다. 득량면희망드림협의회와 우리동네 복지공동체는 생필품 지원 및 집 안팎 환경 정리 봉사

활동을 보였다.

득량바라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재까지 장애인 가정 리모델링 등 총 20세대 1억1600만원을 지원에 열악한 주거 공간을 깨끗하고 안락한 환경으로 변모시켰다.

조승권 득량면장은 “주거환경개선은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민간 협력을 통해 주민의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광양시 '송년 콘서트'

16일 문예회관...유명 가수 참여

광양시가 오는 16일 오후 7시 30분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송년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콘서트는 2022년을 마무리하며 시민에게 활력을 주고 행복지수를 높여 새해를 힘차게 시작하도록 응원하기 위해 마련한 기획공연이다.

파워풀하고 열정이 넘치는 트로트계 황태자 박상철과 광양 지역 출신으로 시원한 가창력의 소유자인 가수 서지오, 히트싱어와 보이스퀸에서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트로트 디바로 주목받고 있는 가수 김은주와 최나리, 광양시립합창단원 등이 출연한다.

프로그램은 대중에게 친숙한 트로트와 우아한 클래식 음악으로 구성돼 110분간 진행되며 관객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관람권은 5일 오전 10시부터 인터넷 티켓링크와 문화예술회관에서 지정석 예매가 가능하고, 관람료는 5000 원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예술과(061-797-3602, 252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미란 광양시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콘서트를 통해 2022년을 마무리하는 힐링의 시간과 따뜻한 송년을 보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기농야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2년 12월호

2022년 11월 30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2022

수고했어, 올해도

- 한 해를 보내며, 치유의 시간을
- 가볍게 떠나고 싶다면 이곳으로
- 송년의 헛헛함, 책과 영화로 채우세요

영도 오디세이

美路 味路

'생태관광 일번지'의 따뜻한 여행
곡성은 푸근하다

겨울정미와 증기기관차 섬진강 기차마을 | 태안사 숲길 시그나리와 압록 상상스쿨 | 대항강 출렁다리 '가랑드' 트란 베이커리 | 깔끔한 맛의 토란 막걸리 정원카페 'OIDORA'와 '디트레인' 베이커리

2022

송년기획 - 2022 문화계 결산

문학 '문학의 연대'와 문학상 수상작들 눈길
전시 거장의 작품 만나는 대형 전시를 주목
공연·영화 다양했던 연극 공연, 뜨거웠던 '임운찬' 무대

예향 초대석

'섬김의 리더십' 전하는 이태석재단 이사장
구수환
"공감·봉사·섬김의 삶 퍼져나가길 바랍니다"

클릭, 문화현장

언제 가도 최고의 예술이 있는 곳
과천국립현대미술관

기획
도시가 역사를 기억하는 법 ② 서울

'어둠 찢고 나라를 지키다'
묵직한 공간에서
숙연한 감동

필름 전시 - 조르주 무오전
"루오의 '미제레레'가
건네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세요"

광인의 '예술가의 한 끼' ③
"조각가는 농부 마음 가져야"
박충흠, 농사 지어 자급자족

스포츠 이야기
KIA타이거즈 마무리 캠프 특별했던 열기
"제주도에서 시작을 향해 뛰었다"